

舊蘇聯의 改革政策의 問題點에 관한 研究**

——고르바초프 改革政策의 挫折——

최 종 기*

.....<목 차>.....	
I. 서언	IV. 소련 경제의 악화와 연방의 붕괴
II.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사고	V. 소련방 해체 후의 1년
III. 고르바초프 외교의 변화	VI. 결론

〈요약〉

1985년 3월 12일,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체르넨코의 뒤를 이어 소련 사상 8 번째의 黨書記長으로 선출되었다. 출범 당시의 고르바초프 정권은 經濟問題의 解決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기존 체제 내에서의 활동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마침내 1986년 6월의 당중앙위원회연설, 7월의 하마로보스크 연설에서 차례로 페레스트로이카의 理念을 천명했다.

페레스트로이카는 당초 실추된 공산당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었으나, 1987년 아래 급진적인 개혁조치를 수반하면서 革命으로까지 불려지게 되었다. 즉 페레스트로이카는 ① 公開性, ② 經濟의 非中央集權化, 私企業化, ③ 市場經濟의 導入, ④ 民主化 등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소련이 직면한 諸矛盾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인 어프로치로서 발전한 것이다.

페레스트로이카의 실시로 소련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으나 經濟面에서는 뚜렷한 성과가 없었고, 오히려 惡化되는 양상까지 보였다. 게다가 蘇聯邦內의 政治的・社會的 不安定까지 겹쳐서 페레스트로이카는 담보상태에 빠져들었고, 1991년 8월 19일 보수파측의 쿠데타 기도와 실패라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1991년 12월 25일 蘇聯邦은 해체되고 獨立國家聯合(Commonwealth of Sovereign States: CIS)이 결성되었다. 이는 페레스트로이카의 失敗와 고르바초프의 挫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후 소련방 붕괴 과정에서 지도자로 부상한 엘친이 러시아共和國 大統領으로서 改革을 추진하고 있으나, 議會와 政府의 對立 속에서 蘇聯經濟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을 따름이다. 舊蘇聯圈의 分裂, 러시아聯邦의 保革葛藤의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본稿의 일부는 “소련의 改革政策에 대한 檢討”라는, 筆者가 “社會主義體制의 變化斗葛藤”(碧波 李命植 博士 華甲論文集, 大旺社, 1991)에 執筆 收錄한 論文의 內容을 修正・改筆한 것임.

본 논문은 1991년도 서울대학교 박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深化는 어떤 관점에서는 고르바초프가 내걸었던 베레스트로이 카의 挫折에 따르는 결과일지도 모른다.

I. 序　　言

1985년 3월 12일 미하일 · 고르바초프(Mihail Gorbachev)가 蘇聯共產黨書記長이 취임하였을 때, 과연 그가 改革을 의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다.¹⁾ 다만 '84년 12월까지 고르바초프는 黨委員會副書記으로서 理念問題를 담당하여 개혁적인 발언을 수 차례 해왔다는 것이 알려져 있을 따름이다.

고르바초프는 改革派 政治局員으로서 체르넨코(Konstantin Chernenko) 不在時 政治局, 書記局의 司會를 맡은 적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체르넨코의 후계자로서 인정받고 있지는 않았다.²⁾ 그러나 1985년 2월 24일 러시아共和國 最高會議 代議員選舉 당시 모스크바市內 投票所에 취재를 위해 대기한 외국 기자 앞에 病床의 체르넨코를 대신하여 고르바초프가 나타났을 때 소련당국의 의도가 드러났다. 그의 투표광경이 소련의 국내 T.V에는 방영되지 않았으나, 書記長 이외의 인물의 投票에 대한 取材를 외국 기자단에 허용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서 이는 고르바초프시대의 개막이 가까웠음을 보여 주려는 의도가 소련 당국에 있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실제로 同年 3월 10일 체르넨코 사망발표 이후 葬禮委員長의 결정과 고르바초프의 黨書記長 選出, 13일의 國葬까지의 조치는 신속하고도 원활하였다. 즉, 고르바초프를 체르넨코의 후계자로 추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당지도부내에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³⁾

브레즈네프(Leonid Brezhnev)의 18년간의 장기집권(1964년~1982년)은 그 후 반기에 있어 심각한 人事停滯와 지도부의 노령화를 초래했는데, 그 결과로 브레즈네프 사망후 2년 4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소련에서는 세 번의 정권교체가 書記長의 死亡이라는 원인으로 인해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대 중반 소련이 지닌 내외의 어려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력이 확립되지 않

- 1) 崔鍾起, “소련의 改革政策에 대한 檢討”, 社會主義體制의 變化와 葛藤(碧波 李命植 博士華甲紀念), 大旺社(서울 : 1991年), p. 56.
- 2) Gali Sheeby, *The Man Who Changed the World*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1990), pp. 152-155.
- 3) Stephen White, Alex Pravod and Zvi Gilelman, eds., *Developments in Soviet Politics* (London: Maemillan, 1990), pp. 17-18, Archic Brownen ed., *Political Leadership in the Soviet Uni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pp. 119-120.

으면 안된다는 압력이 크레믈린 지도부에 가해졌고, 이것이 고르바초프를 등장시킨 要因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어쨌든 50대 전반의 젊은 書記長의 탄생은 소련내부에서조차 횡기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고르바초프는 스탈린(Stalin), 말렌코프(Malenkov)에 이어 비교적 젊은 나이로 최고 지위에 취임하게 됨으로써 소련지도부에 세대교체의 파도가 밀려올 것을 예견케 하였다.

노화된 소련 지도부내에서 젊은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만, 우리는 특히 새로운 서기장이 구세대의 지도자들과 현저히다른 배경을 가지고 성장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蘇聯의 종래의 지도자들과 고르바초프가 구별되는 성장배경은 첫째, 그가 볼셰비키革命(1917년)以後 世代라는 점이다. 체르넨코 이전까지의 黨指導部가 모두 혁명을 경험한 세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단히 주목할 만한 점이다. 둘째, 그는 전쟁경험 없다는 사실이다. 소련에서 大祖國戰爭이라 일컬었던 獨蘇戰爭開戰(1941년) 당시 고르바초프는 겨우 10살이었으며, 종전시에도 15살에 불과했다.셋째, 스탈린이 사망한 해(1953년)에 고르바초프가 모스크바대학에 재학중이었다는 사실이다. 인격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학창시기에 독재체제가 봉괴하는 과정을 목도했다는 것과 관료시절에 스탈린의 피의 숙청을 직접 겪지 않았다는 것은 전쟁체험의 결여와 함께 무시할 수 없는 특징인 것이다.

하지만, 舊世代와 구별되는 그만의 특징은 결코 급진적이지 않게, 서서히 黨의 政義에 영향을 끼쳤다. 즉, 고르바초프가 書記長이 된 지 1년째 되는 1986년 2월 蘇聯共產黨 제27차 黨大會가 개최되어 새로운 黨綱領과 加速化戰略이 채택되었지만, 여기서도 실질적인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改革)에 관한 이념의 천명은 없었으며, 소련사회의 全面的인 改革으로서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이 대회로부터 1개월 후, 트리아티市의 노동자들을 상대로 행한 연설 속에서 비로소 언급되기 시작했다. 즉, ‘思考, 心理, 組織, 業務의 形式과 方法에 있어서 페레스트로이카적인 시도가 요구된다’는 내용이 연설문에 포함되었던 것이다. 이로부터 3주일도 되지 않은 4월 26일 숙명적인 체르노빌(Chernobyl) 원자력발전소의 ··고가 발생하였다.⁴⁾ 이것은 고르바초프 및 그의 주변의 권력자들로 하여금 더이상 이전의 방식대로는 體制를 維持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그해 6월 고르바초프는 당중앙위원회 총회에서 “經濟分野 뿐만 아니라, 社會 全體의 페레스트로이카가 필요하다”라고 강변하면서, “페레스트로이카는 모두가 참여하여야 한다. 平黨員에서 中央委員會 書記까지, 노

4) Cali Sheeby, *The Man Who Changed the World*, op. cit., pp. 237-239, 264, 268.

동자로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技士로부터 아카데미會員에 이르기까지이다”라고 덧붙였다.⁵⁾ 이러한 그의 의지가 세계전체에 확연히 인식된 것은 7월 31일 카바로보스크 혼설에서 페레스트로이카는 革命이라고 강조했을 때였다.⁶⁾ 여기서 ‘革命’이란 용어를 거대한 變革, 즉 革命的인 改革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改革政策은, 黨僚, 官僚, 國營企業體 幹部 등 舊體制에서 特權을 남용하던 세력의 저항으로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경제상태는 점점 악화되지만 해서 국민들의 불평불만이 고조되었다. 게다가 蘇聯邦共和國과 각 共和國간의 권력분할문제를 둘러싼 고르바초프 聯邦大統領과 엘친 러시아共和國大統領간의 권력투쟁이 심화되어, 고르바초프는 정치적인 타협책으로, 연방체제를 느슨하게 유지하면서 각 共和國에 많은 권한을 移讓하는 聯邦共和國의 體制를 제시하여 改革政策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를 위한 條約調印 하루 전날인 1991년 8월 19일 보수강경파에 의한 쿠데타(주모: 부통령 야나에프)가 발생했고, 이는 엘친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시민들의 저항으로 3일 만에 실패했다.⁷⁾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그 여파로 인해 蘇聯邦政府의 指導力은 점차 무력해지고, 엘친 러시아 大統領만이 독주하게 되어 고르바초프 聯邦 大統領은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러시아共和國, 우크라이나共和國 및 벨로루시 3국 지도자는 슬라브민족을 중심으로 한, 각 共和國의 獨立을 촉구하였고, 마침내 1991년 12월 3일 민스크에서 11개 공화국 수뇌가 회²하여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Sovereign States: CIS)을 출범시킴.^{1)로써, 蘇聯邦(USSR)은 解體되고, 고르바초프 聯邦大統領은 1991년 12월 25⁴⁾辭任하고 말았다. 이로써 1917년 11월 블셰비키 혁명으로 지구상에서 최초의 社會主義共和國으로 출범한 蘇聯邦은 74년 만에 소멸하고, 蘇聯邦의 중요한 국제적인 의무 등을 러시아聯邦으로 移讓되었다.}

^{2) 稿는 고르바초프 蘇聯共產黨書記長이 내걸었던 페레스트로이카(改革)정책이 실패에 이른 과정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5) Mikhail Gorbachev: *Perestroika: New Thinking for Our Country and the World*, (New York: Harper Spow, Publishers, 1987), p. 22.

Vladimir Shiapenkoh, *Soviet Ideologies in, The Period of Glasnost: Responses to Brezhnev's Stagnation*, (New York: Praeger, 1988), pp. 128, 137-139, 181.

6) 和田春樹, 「ペレストロイカ成果と危機」(東京: 岩波書店, 1990), p. 4.

7) *The New York Times*, August 21, 1991.

한국일보, 1991년 8월 22일, 동아일보, 1991년 8월 21일

II.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思考

. 페레스트로이카의 概念과 構想

페레스트로이카의 概念을 규정하는 데는 몇 가지 사실에서 출발할 수가 있다.⁸⁾ 그 첫번째 출발점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現狀에 대한 불만과 現制度의 결합에 대한 비판이다. 둘째는 그들이 장래의 사회에 대해 그리는 이미지(image)로서 일종의 理想이라고 하여도 좋다. 세번째, 선진자본주의 諸國의 경제생활에 대한 경험이다. 마지막으로 네번째는 소련서 시작된 페레스트로이카의 경험과 그 경험에 의해 향후 강요되고 있는 수정주의정책들 자체이다. 이러한 여러 사실들을 모두 감안할 때 애당초 페레스트로이카는 글라스노스트(Glasnost)를 바탕으로 民主化를 표방함으로써 共產黨의 잃어버린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었으나, 1987년 아래 이 조치는 급진적인 改革으로 간주되어 革命으로 불리워질 정도가 되었다. 즉, 페레스트로이카의 주요방향이 ① 公開性, ② 經濟關係의 非中央集權化, ③ 經濟의 私企業化, ④ 市場經濟 도입, ⑤ 民主化 등으로 설정되며⁹⁾, 페레스트로이카는 이제 共產黨의 권위회복을 위한 하나의 政策이자기 보다는 蘇聯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矛盾을 해소하기 위한 戰略으로서의 성질을 띠게 되었고¹⁰⁾ 즉, 政治와 社會에 대한 새로운 어프로치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資本主義 諸國의 경제적 발전경험, 각종 경제체제와 맹점의 경험, 시장의 발전과 규제의 경험, 독점화와 비독점화의 경험, 인플레이션과 실업과의 싸움, 지역개발과 사회계획의 경험, 환경보호의 경험 등은 페레스트로이카의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蘇聯 자체의 實行意志가 중요한 것이다. 즉 蘇聯社會내에 진정한 民主的 制度가 존재하고, 페레스트로이카 실천의 결과를 솔직하게 분석하여 그 결함을 용감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결함을 修正, 改善할 수 있어야만 한다.¹¹⁾

8) ゲブリールボボフ、ルカヅエベイ, 大月出入一, 佐口木照央譯, 「検證ペレストロイカ」(東京: ライビー・エ, スプリタニカ, 1990), p. 223.

9) Ben Eklof, *Soviet Briefing: Gorbachev and the Reform Period*(Boulder: Westview Press, 1989), p. 13.

10) David Lane, *Soviet Society under Perestroika*, (London: Unwin Hyman, 1990), p. 13.

11) ゲブリールボボフ、ルカヅエベイ, 大月出入一, 佐口木照譯, 「検證ペレストロイカ」(東京: ライビー・エ, スプリタニカ, 1990), p. 224.

한편 페레스트로이카는 그 실천을 위해 다양한 구상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그 첫번째 구상은 당시 존재한 官僚制度의 메카니즘을 改良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를 제안은 브레즈네프시대에 이미 행해진 것을 되풀이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숨각하다. 공식자료를 보면 한 省은 과거 5년간에 생산고를 1루블 증가시키는 데 1.5루블을 필요로 하였는데, 이러한 양상으로 발전하는 나라는 파산하는 수밖에 없다. 투자와 투자결과가 負의 비율로 이루어지고, 동시에 생산증가율과 인구증가율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경제는 발전할 수 없다.

페레스트로이카의 두번째 구상은 現 制度의 規範性을 回復하고 強化하는 것이다.

페레스트로이카의 세번째 구상은 諸問題의 行政的인 解決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 기초에 있는 생각은 규율을 강화하는 것 보다는 우선 관리기구내의 분격적인 인사숙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구상은 근본적인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개념이다. 즉, 장래의 사회형태 다시 말하자면 宗全한 共產主義 社會로 급속히 履行한다면 蘇聯내에 산재해 있는 일체의 곤란을 극복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될 수 있는 대로 단기간내에 宗全한 共產主義社會로 履行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라는 생각이다.¹²⁾ 이와 같은 초기의 페레스트로이카 구상은 上部에서 결정되어 下達된 것이다.¹³⁾

2. 페레스트로이카의 진행

고르바초프 정권이 실질적인 성과와 개혁을 이루한 분야는 内政쪽보다는 外交·군사였으나, 별쪽 당시의 고르바초프정권은 内政 改革에 전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경제의 페레스트로이카가 고르바초프 혁명의 핵심이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고르바초프는 안드로포프에게서 배운 規律強化方針을 도입하여 직장규율의 강화, 불로소득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소련과 같은 사회에서는 이념을 변화하거나 허가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 보다, 규율강화와 금기항목의 증대가 더 용이한 일이다. 경제정책으로서 불로소득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고, 국가 겸수제도와 같은 군수산업의 품질관리 방식이 실제로 실행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르바초프는 개혁을 추진하였다.

고르바초프가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유리한 환경은 舊 소련지도부가

12) Ibid., p. 234.

13) Eklof, *Soviet Briefing Gorbachev and the Reform Period*, op. cit., pp. 13-14.

세대、그체를 강요당하고 있어 개혁성향의 젊은 세대로 지도부를 교체하기가 비교적 수월하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고르바초프는 黨 인사권을 이용하여 개혁파로 보이는 야코블리프(Yakovlev) 등을 기용하였다. 각료회의의 구성원이 젊어지고 관청통합의 과제가 제기되었으며, 科學技術의 近代化를 추진하고자 기계공업을 1990년대의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회의를 6월에 소집하여 ‘加速化’의 方針이 제시되었다. 또한 국제문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思考의 이념을 도입하였다.¹⁴⁾ 그러나 직업개선과 자원의 재분배를 기조로 하는 加速化(acceleration: Usko enie) 전략¹⁵⁾은 곧 한계에 이르러, 농업·소비재 산업 등의 전반적인 개혁 없이는 더 이상 이를 전개할 수 없는 국면에 이르렀다. 즉, 부분적인 규제완화의 조치가 아니라 전반적인 이념의 전환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어 따라 완만하던 페레스트로이카의 과정이 정차 急進的으로 변했다. 1987년은 페레스트로이카의 실질적인 원년이었다. 1월의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社會의 國主化’가 강조되었고,¹⁶⁾ 6월의 중앙위원회 총회에서는 기업의 자주관리와 독립체 산체를 내용으로 하는 經濟改革案이 결정되었다.¹⁷⁾同年 11월 고르바초프는 볼셰비키혁명 70주년의 기념집회에서 보수파와의 타협에 의한 역사적 총괄설을 하였다.

이후 1988년 6월의 제19차 당협의회는 고르바초프의 완전한 해체모니하에 진행되며 인민대의원대회와 최고회의를 통합하는 정치개혁을 단행하였다. 그해 9월 고르바초프는 중앙위원회총회를 급거 개최하여, 그로미코(Andrew Gromyko) 등 고참 정치국원의 은퇴와 중앙위원 다수의 교체를 단행하였다.¹⁸⁾ 또한 연말에는 헌법개정을 통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졌고, 芬蘭諸國에서는 인민전선이 설립되었으며 대중적인 시민운동단체가 출현하였다. 그리고 1989년에는 聯邦人民代議員(the Congress of People's Deputies)選舉가 실시되어 議會制 民主主義의 첫 발을 내디뎠다.¹⁹⁾

14) Valter C. Clemens, Jr., *Can Russia Change*, (Boston: Unwin Hyman, 1990), p. 167.

15) Dikolof, *Soviet Briefing: Gorbachev and the Reform*, op. cit., p. 13.

16) Boruch A. Hazan, *Gorbachev and His Enemies*, (Boulder: Westview Press, 1990), p. 16-17.

17) Gorbachev, *Perestroika*, op. cit., p. 49.

18) Hazan, *Gorbachev and His Enemies*, op. cit., pp. 190-192.

19) Lane, *Soviet Society Under Perestroika*, op. cit., pp. 64-71.

3. 페레스트로이카의 장애요인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의 기틀을 소신껏 구축하지 못한 주요한 장애요인은 첫째, 黨內 保守勢力의 임존이다. 이 때문에 고르바초프는 소비에트를 최고권력기관으로 부활시켜, 人民代議員大會와 더불어 상설의 최고회의로 격상시키는 정치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는 고르바초프가 당 내에 또하나의 통치 루트를 열기 위해 권력투쟁의 우회작전으로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장애요인은 民族問題의 첨예화이다. 페레스트로이카는 민족문제에 새로운 불씨를 뿜린 결과가 되었다. 蘇聯邦은 127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多民族國家이다. 종래 스탈린의 강제적인 통일정책에 의해 민족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페레스트로이카에 의해 각 민족이 스스로의 민족적 이익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게 되자, 민족간의 이해 충돌이 표면화된 것이다. 이와 같은 민족문제의 확대는 고르바초프의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것이었다. 페레스트로이카에 의한 민족주의의 감정의 분출로 인하여 소련국민은 공통감정(Identity)을 잃어가고 있으며, 고르바초프가 문제해결을 위해 페레스트로이카에 역행하는 무력 수단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민족문제가 페레스트로이카 수행에 중요한 딜레마임을 보여준다.

이와같은 민족문제의 근원은 經濟問題에 기인하는 것이다. 경제적 이해의 대립이 민족문제의 주된 요인인 것이다. 물론 政治的・文化的・社會的 대립도 있다.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되기 전에는 러시아語가 각 민족공통의 공용어로 보급되어 왔는데, 각 共和國에서 自國의 民族語를 公用語로 채택하는 사실 하나를 보더라도 페레스트로이카는 민족관계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하기만 역시 경제의 빈곤, 실업의 증가 등 경제문제가 민족대립의 방아쇠가 된 경향이 많다. 고르바초프는 경제개혁의 기둥으로서 獨立採產制와 資金自己調達制의 확립을 내세우고 있다. 발트 3國은 이 고르바초프의 제안을 역으로 이용하여 自治權 확대와 獨立를 요구하여, 경제조건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강하다. 결국 발트 3國이 蘇聯邦으로부터 제일 먼저 獨立를 달성할 수 있었다.

4. 페레스트로이카의 위기

1990년은 페레스트로이카의 轉換期였다. 이 해는 연방군의 바쿠(Baku) 진주로 시작되었다. 고르바초프는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憲法 第 6 條을 폐지하고, 共和國, 州, 市수준의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議會制 民主主義의

하부 구조가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고르바초프가 聯邦政府의 大統領으로 간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으며, 보리스 엘친(Boris Yeltsin)은 직접 선거에 의해 러시아 聯邦共和國의 大統領으로 선출되어 주권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²⁰⁾ 급진개혁파가 모스크바, 레닌그라드의 市政을 장악하였고, 발트 3國이 독립을 선언하는 등, 많은 共和國이 主權을 선언하였다.

한편 보수파 포로스코프(Ivan Polozkov)를 서기장으로 선출한 러시아공산당의 초설에 이어, 1989년 7월 개최된 연방공산당 제28차 당대회에서는 우파와 중간파가 우세를 점하게 되자. 고르바초프는 黨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사실상 단념하고 대통령실만을 중심으로 민주의회파와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을 채택하였고, 보수파의 거두인 리가초프(Yegor Ligachev)는 경계를 떠났다. 당면과제인 經濟改革과 聯邦制改革에 관한 해결을 위한 기본 방향은 명백했으나, 공산당은 정치적 역할을 상실하고 자연해체의 단계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은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新思考外交, 글라스노스트(정보공개), 의회제 민주주의 기구의 탄생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 맷가르 페레스트로이카는 세가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聯邦의 위기, 經濟의 위기, 共產黨의 위기가 그것이다. 특히 발트 3國의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의 실시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軍投入에 의한 유혈사태의 초래는 개혁정책을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이는 고르바초프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軍部와 KGB에 의존하여 보수파와 타협한 결과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소련 國內政治는 물론 新思考外交哲學에 바탕을 둔 데탕트무드에 까지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었나.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共產黨의 활력의 저하와 권위의 상실을 黨 이외의 정치 단체를 포용하여 보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인기를 만회하려고 했으나, 고르바초프 개인의 인기는 하락할 때를이었다. 페레스트로이카는 인플레이션, 물자 부족 등의 장애에 직면하여 오히려 국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결과가 되었으며, 경제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페레스트로이카는 그림의 떡으로서 국민의 인내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 일본, 그리고 한국등에 경제원조를 위한 손길을 뻗쳤으나 발트 3國에 대한 무력개입은 이러한 서방사회의 對蘇援助에 찬물을 끼얹게 되었다. 결국 발트 3國은 독립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蘇聯邦은 붕괴되고 각 공화국은 완전한 주권독립을 이루게 되었다.

20) John Morrison, *Boris Yeltsin*, (London: Penguin Book, 1991), pp. 194-198.

III. 고르바초프 外交의 變化

전통적으로 蘇聯外交에서 중요시된 것은 理念的 要因이다. 그러나 고르바초프 外交는 소위 새로운 政治思考(new thinking: Novoe Myshlevie)²¹⁾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새로운 사고는 다음의 세 가지 시작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첫째는 國際關係에 있어서 相互依存關係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예: 환경오염, 천연자원의 고갈, 우주개발, 지역갈등)의 해결이 지구적(global)인 규모와 관점에서의 접근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세째는 國際的인 安全保障이 軍事的 手段뿐만 아니라, 政治·經濟 등의 기타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확보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思考는 고르바초프시대의 공식적인 蘇聯外交政策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蘇聯의 국내정치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²²⁾

즉, 고르바초프는 內政과 外交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蘇聯外交를 蘇聯內政의 연장으로 파악하는 발언을 수차례 행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1987년 2월 16일 모스크바 국제평화 포럼에서의 연설에서 “내가 책임지고 갈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의 蘇聯外交가 國內政策에 의해, 즉 우리나라의改善·위한 건설적인 활동에 노력을 집중하려는 우리들의 利害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는 점이다.²³⁾라고 지적하였던 것이다.

흔히 고르바초프는 對外的 成果를 바탕으로 자신의 국내권력기반을 강화하여 이것을 통하여 국내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는, 당초 예기치 않았던 작업질차를 밟기도 하였다.

예당초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무엇보다도 經濟的인 動機, 즉 蘇聯의 經濟가 세계적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뒤떨어져 있다는 차각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페레스트로이카의 가장 핵심적인 추구사항이 效率化이니, 이것이 外交에서도 우선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다. 세바르드나제(Shevardnaze) 蘇聯外相(당시)이 소련외무성 직원 앞에서의 연설에서 “우리들의 對外政策을

21) Eklof, *Soviet Briefing: Gorbachev and the Reform Period*, op. cit., pp. 2-3. Seweryn Bialer, ed., *Inside Gorbachev's Russia*, (Boulder: Westview Press, 1989),

22) R.F. Miller and T.H. Righy, “Domestic Determinants of Soviet External Politics: Prospects for Change in the 1990s,” in Poss Babbage, ed., *The Soviet in the Pacific in 1990s*, (Oxford: Pergamon Press, 1990), p. 2.

23) ミハイルゴルバチョフ, ソ連内外政策研究會議, 「ゴルバチョフ演説・論文集Ⅱ」, (東京: 國際文化出版部, 1987), pp. 103-122.

經濟化할 필요가 있다”²⁴⁾고 발언한 바 있는데, 이는 理念보다는 利害를 중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고르바초프 스스로도 國家關係는 脫理念化²⁵⁾하여, 이익의 균형 위에 서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바탕 위에서 蘇聯外交는 종래의 對美關係 第一主義를 수정하여 서유럽과 日本을 상대적으로 중시했다.²⁶⁾ 그렇다고 해서 美國을 경시한 것은 아니며, 여전히 미국을 중요시하는 외교정책을 고수했다. 고르바초프는 레이건 대통령(당시)과 네 차례에 걸쳐 美·蘇頂上會談을 가졌고 부시 대통령(당시: 1993년 1월 20일 회임)과도 몇 차례 頂上會談을 가짐으로써 냉전시대의 종식을 선언한 바 있다. 제3세계에의 진출과 팽창에 대해서도 蘇聯은 종전과 같은 열의를 나타내지 않고 과거의 과잉관여를 접차 감소시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르바초프가 제3세계 개입의 政治·經濟的費用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國祭組織에 대한 蘇聯의 태도와 政策도 크게 변화하였다. 國際聯合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장기간 체납된 국제연합분담금(평화유지군 경비 포함)의 지불에 동하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직의 권한강화를 지지했다. 여러 국제경제기구에도 참여를 표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특히 1990년 8월 2일 이라크(Iraq)가 쿠웨이트(Kuwait)를 침공하여 점령하자, 國際聯合 安全保障理事會에서 蘇聯은 결의안 660號(1990년 8월 2일 채택, 그후 12개의 결의안을 채택) 등²⁷⁾에 디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방측에 동조하여, 국제연합이 이라크를 응징하는데 동참하였다.

이상과 같은 蘇聯外交政策의 變化는 蘇聯國內의 改革政策을 추진하는 데 미을 비롯한 西方諸國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가이익 추구라는 실리면에서 최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理念보다 國家利益 우선이라는 점에서 北韓과 同盟關係에 있는 蘇聯이, 韓國과의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의해 1990년 9월 3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정식으로 國交樹立에 調印한 것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²⁸⁾

24) *Vestnik Ministrovstva inostrannych der USSR*, No. 1 (September 10, 1987), p. 1.
pp. 7-8.

25) *Pravda*, December 21, 1988, p. 4.

26) *Pravda*, May 31, 1989, p. 3.

27) IISS, *Strategy Survey 1990~1991*, (London: IISS, 1991), pp. 53-83.

28) 유엔本部서 外相 세마르드나체(당시)는 崔浩中長官(당시)과 國交正常化에 관한 調印을 하였다. 소련측은 당초 1991년 1월 1일자로 國交正常化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국내경제의 악화와 한국측의 끈질긴 노력으로 예정일을 앞당겨 修交에 이른 것이다.

IV. 蘇聯 經濟의 惡化와 聯邦의 崩壞

1. 經濟페레스트로이카의 失敗

고르바초프 政權이 성립된 이후 실시된 對外政策 및 國內政治制度의 改革, 문화보도면에서의 글라스노스트 정책, 그리고 이념과 역사의 재고찰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改革政策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經濟面에서는 두렷한 성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화일로의 양상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소련의 경제적 위기는 國家社會主義制度의 위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한 改革이 초래한 위기, 그리고 개혁의 과정에서 근본적인 變革에 대한 망설임에서 초래된 위기라는 3종 구조를 갖고 있다.

한 예로서 고르바초프가 등장하여 초기의 반알콜캠페인을 전개한 것은 政治的 社會的으로 일정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으나, 經濟的으로 보면 알콜판매수입을 감소시켜 포도재배업을 倒産시키고 국가 세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었다.²⁹⁾ 때마침 국제적으로 석유가격이 폭락하여, 소련은 석유수출에서 얻는 외화수입의 감소까지 겹쳐 국가재정의 빈곤은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의 기틀을 짓는 데 주요한 악재로 등장하였다. 한편 초기의 가속화노선에서는 기계·화학의 진흥이 포함되었으나 이를 위해 무리하게 투자를 확대한 까닭에 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기체개혁의 방향으로서는 行政指令的 經濟管理에서 다양한 소유형태에 의한 獨立採產制, 資金自體調達制에 의한 履行이 상정되었다. 이중 현실로 구체화된 정체은 협동조합, 개인노동, 청부생산방식의 장려 정도이다. 그러나 그것도 기업 생산활동의 90 퍼센트 이상이 國家發注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로서는 종래의 國家割當制에 의한 計劃方式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³⁰⁾ 이러한 經濟制度의 改革은 표면적으로는 경제운영의 지방분권을 도모하기 위해 취해진 것으로 보이나, 사실은 재정적자가 1,000억 루블에 이르러 국가투자의 財源이 바닥나 기업을 비롯한 諸경제조직이 필요자금을 자연스럽게 출연하여 독립채산제로 기업을

29) Lane, *Soviet Society Under Perestroika*, op. cit., pp. 322-325. 1988년 11월, 알콜中毒者는 소련내에 460萬명이나 되어서 고르바초프의 정책은 어려움을 겪었다. 1980년과 1987년간에 국가의 酒類生產高는 약 50% 감소되었다. 특히 Vodka 生產은 도수가 얇은 초도주등으로 대치되도록 장려되었다. 결과적으로 각 가정에서 술을 비공식적으로 만들어 마시는 까닭으로 술제조에 필요한 설탕이 동이 나고, 각 가정에서 만드는 술은 전체 술 소비량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결과가 되었다.

30) 梶 健三, 「内政に苦しむゴルバチフ政權」, 「海外事情」(東京: 1990년 1月號), p. 31.

운영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獨立採產制와 資金自體調達制 등의 기업에 자주성을 부여하는 개혁정책은 소련 내에 애매한 社會主義市場을 성립시켰다. 하지만 그 결과로서 생산은 향상되지 않고 인플레이션만이 촉발되어 경제는 최악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즉, 자유경제에 의해 성립되는 自由市場이 없기 때문에 기업은 경쟁적으로 생산품의 가격을 올려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켰고, 원료·자재의 사재기를 위해 비용을 무시한 가격 올리기 경쟁에 빠졌으며, 최종 소비부문에서는 일상 소비물자가 상점에서 자취를 감추어버려 파레스트로이 카에 대한 시민의 불신과 불만을 더욱 고조시켰다.

개인의 창의를 자극하기 위해 취하여진 協同組合 및 個人經營도 그에 필요한 자재의 대부분을 국영상점에서 조달하고 약간의 가공과 서비스를 부가하여 이윤은 크게 덧붙임으로써 소비물자의 부족과 가격의 인상만을 자극하는 데 그치고 밀었다. 협동조합의 이윤추구가 시민의 원성을 사게되자 정부는 협동조합이 국영상점에서 필요자재를 사들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³¹⁾

재기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식료품 등에 지출하고 있는 국가보조금을 대폭 삭감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식료품 가격의 폭등이 가계를 압박하는 가격체제를 그대로 방치하여 두고 소련정부가 어떻게 企業經營의 效率化와 生產性向上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다.

고르바초프는 사실 명확한 칭사진을 가지고 경제개혁에 착수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내세우고 있는 政策과 法令 등의 대부분은 소련이 직면한 諸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 혹은 그때 그때 내세워진 치료법적인 성격이 강한 임시방편의 것들이다. 그 결과 정책으로서의 一貫性과 安定性을 결여하여 불신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소련 개혁정책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고 서로 모순되는 저령과 정책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어서 추진도중에 담보상태에 봉착한 경우가 많다. 한편, 사회학적 조사에 의하면 기업의 책임자·기술자 등의 전문가들까지도 약 50%가 새로운 경제정책과 그 방법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²⁾ 그 주요원인은 역시 조령모개식의 개혁정책 때문이다.

이러한 혼란의 근본원인은 소련의 경제개혁정책이 經濟成長의 加速화와 經濟의 質的改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잘못을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고르바초프는 종래의 양적 확대정책을 답습하는 성장가속화전략을 초기의 경제정책의 기본전략으로 삼아서 2000년까지 국민소득, 공업총생산을

31) 仁同, p. 32.

32) *Правда*, 28 Июл, 1989.

비 중시한다는 현실성 없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후 이를 위해 소련 산업전체의 설비 근대화를 위해 막대한 액수의 재투자계획을 마련했던 것이다.³³⁾

궁극적으로 소련경제의 결함은 自由市場과 競爭의 原理가 결여되어, 需給의 균형을 일원적으로 실현하는 價格에 의한 市場 메카니즘이 기능하지 않는 점에 있다. 소유권을 다양화하여 사적 경영부분을 넓히고 경제관리의 권한을 연방에서 공화국으로 이관하여도 자유경쟁의 원리가 충분히 작용되지 않는 한, 하이테크를 비롯한 기술혁신 분야에서 서방측과 맞서 경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어떠한 성과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한편, 蘇聯邦으로서의 一體性 상실은 經濟面에서 또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소련경제는 나날이 무질서화되어 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물물교환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물품의 흐름을 중앙에서 통제하지 못하여 유통과정에서 물자가 소실되어 말단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이 상례화되고 있다. 이와같이 유통이 제 기능을 상실한 가운데 식료품과 소비재의 산지에서는 식량·자원 등에 관한 중앙정부의 공출증명에 응하지 않는 사태가 증가하여 지역적인 물자의 편재가 일층 가속화되고 있다. 물자부족은 소비지인 대도시에서 특히 심각하다. 西方諸國들은 소련정부의 긴급원조 요청에 응하여 식량과 의약품의 긴급원조를 결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

2. 蘇聯經濟의 現況

소련경제의 현황을 통계면에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첫째, 소련 정부가 財政赤字와 對西方債務에 관련된 중요한 統計資料의 대부분을 발표하고 있지 않으며, 둘째는 발표된 통계들 조차도 객관체계가 인위적으로 손질을 본 것이기 때문에 他國과 비교할 수 있는 수치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蘇聯은 1989년 이후 西方의 基準에 부합하는 GNP(국민총생산)의 성장률에 한해 여 1981년부터 소급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 GNP 통계에 의하면 소련 경제는 1981년부터 1985년까지 평균 4%의 성장률을 달성하였고, 고르바초프 경권이 탄생한 다음 해인 1986년 이후에도 3% 내지 5%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에 이르러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³⁴⁾ (표 1 참조)

33) ソ連共産黨 第27回大會資料, 「ソ連大使館弘報部翻譯」(東京: アリエス書店, 1986), pp. 194-198.

34) 1990년 4월 美 CIA가 미국의회에 행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미 1989년에 소련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소련측의 발표와의 격차는 주로 CIA가 소련의 인

〈표 1〉 蘇聯의 成長率 추이

(單位 : %)

年 度	61~70	71~75	76~80	81~85	86	87	88	89	90. 1. 4
GNP	—	—	—	4.0	5.0	3.3	5.0	3.0	▲1.0
GNP(CIA통계)	—	—	—	—	3.9	0.5	1.5	▲1.0	
생산국민소득	7.7	5.7	4.3	3.6	4.1	2.3	4.4	2.4	▲2.0

* C A 통계 ▲ 마이너스

蘇聯에서는 財政問題가 거의 무시되어 왔고, 또한 제대로 이해되고 있지 못하다.³⁵⁾ 최근에 이르러서야 겨우 재정문제와 인플레이션 문제가 중요한 진급과 제로시 신중하게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고르바초프시대에 이르러 금주령과 국제 석유 가격의 하락 등에 의해 국가수입이 크게 감소했고, 반면 임금의 급속한 상승, 적자기업과 농업경영에의 국고대부금 증가,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아르메니아 대지진 대책, 노동자의 스트라이크 대책 등에 의해 국가지출은 급증하였다. 그 결과 국가재정의 적자는 1985년 111억루블에서 1989년에는 1,200억루블로 격증하였다. 이것은 세출의 24%, 국민총생산의 13%에 이르는 액수이다. 소련:³⁶⁾ 이러한 거대한 재정적자를 지폐의 추가 발행으로 총당하였다. 그 결과 구입한 소비물자는 부족한데, 화폐만이 늘어나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킴으로써 1989년 7월 현재 소련국민의 저축총액은 3,144억루블에 달하게 되었다.³⁷⁾ 심지어 그 총액이 5,000억~5,500억루블에 이른다는 추계도 있다.³⁸⁾ 이러한 잉여화폐는 국영상점의 선반을 비게하고, 값싼 상품의 제조를 중지시켜 협동조합점, 우·시장의 가격상승을 초래하였다. 결국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국민들이 축적한 화폐를 감소시키기 위해 50루블과 100루블의 고액지폐를 3일간(후에 며칠 연장) 소액권으로 바꾸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공포하여 잠자고 있는 고액권을 무효화시키려 하였다.³⁹⁾

소련 경제의 위기 상태는 1990년의 경제계획을 최고회의에 보고한 우노로닌 제 1부수수(일반문제 담당)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1년전에 비해 훨씬 어려운 경제경제학에서 1990년을 맞이하고 있다. 1989년의 소련경제는 많은

플레이션율을 감안하여 실질성장율을 발표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1990년 7월 7일.

35) *Правда*, 14 февраля, 1989.

36) APN뉴스, 1989년 11월 15일

37) 崔鍾起, 소련의 改革政策에 대한 檢討, 前揭論文, p. 73.

38) 한국경제신문, 1991년 1월 24일, 蘇 통화개혁단행, 예금인출도체한, 50루블 100루블 유동금지, 고르바초프대통령은 “압도적 다수인민의 이익을 위해 투기와 부패, 일수, 위조 및 불로소득에 대한 투쟁을 강화해 가고, 화폐유통과 소비재시장을 경관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고 말하였다.

부문에서 매월 그 활동이 저하되어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고 경제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재시장이나 생산의 현장에서도 물자부족이 현저하다. 대중의 정치적 활동의 양상은 유감스럽게도 노동규율의 저하를 초래하고, 기약·계획이라는 의무에 대한 책임감의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³⁹⁾ 이와같은 소련경제의 어두운 면을 부각시킨 것도 이례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으나 글라스노스트(정보공개)의 결과 소련경제의 약점이 매스콤에 빈번하게 게재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제체제 당사자의 자기비판론도 이제는 놀랄만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소련경제위기를 집약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1990년의 재정적자가 세출총액의 12%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는 표 2와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 소련 주요 경제지표 (成長率 : %, ▲ 마이너스)

	1981~1985(年平均)	1986~1988(年平均)	1989年 上半期 (前年同期比)
국민총생산	4.0	4.3	5.3(6.8)
광공업 생산	3.7	4.2	2.7(3.1)
소비재 생산	3.7	5.0	5.6(10.1)
도입생산	1.0	2.9	—
수령고정자산	3.1	5.3	▲0.8(13.0)
투자액	3.7	6.8	3.0(3.0)
이윤(전업종)	7.7	9.7	7.4(3.1)
노동생산성			
광공업	3.1	4.5	—
농업	1.5	5.0	—
사업자수(국영부문)	0.9	▲0.1	▲0.7(0.4)
이금(전업종)	3.4	4.4	9.5(7.5)
매매상고	3.1	5.4	9.4(7.6)

註 : 괄호 내는 계획 견적

출처 : 日本經濟研究セタ會報, 1989. 11. 15. シエリツシエフ論文.

〈표 3〉 소련재정적자(추정)

(單位 : 億 루블)

1981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7	1988	1989	1990
79	151	213	159	149	206	662	790	1,206	600

출처 : 1980~1988년은 Plan Econivic社자료 1989~1990년은 ポボフ 蘇聯藏相檢證.

포레스트로이카의 추진에 의해 소련경제 중 활성화된 부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市場經濟의 실험대로서의 協同組合방식은 성공을 거두고 있으나, 良質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알맞는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충분한 이익을 올리고

39) 日本經濟新聞, 1989年, 40號.

있는 곳이 많다. 당연히 이익은 분배되고, 종업원은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또 自由市場에는 풍부한 식료품이 출하되어 고가격과 만성적인 줄서기를 감수하지 않고도 야채 등을 구입할 수가 있다.

소련에서 성공하고 있는 協同組合은 시장경제화의 모범사례이긴 하나, 한편으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주범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협동조합이 산하고 있는 부가가치는 소련 GNP의 1%~2%에 불과하고 소련경제의 대부분은 여전히 계획경제체제 하에 있다. 그 계획경제 틀 속에서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노동자의 시각에서 보면, 고가격으로 요리를 제공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라는 레스토랑은 폭리를 누리고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비쳐진다.⁴⁰⁾

소련의 모든 개혁안들이價格의自由化와補助金의 폐지를 주요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은 개혁이 대폭적인 물가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민감한 기업이나 개인이라면 개혁이 도입되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감지될 경우 개혁시행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터인데, 실제로 전국적 규모의 매점매석이 성행하고 있다.

소련에서 특정지역의 물자부족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은不合理한價格體系이다. 정부의 곡물공정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농민은 정부에 곡물을 파는 채 10배 내지 20배의 높은 가격으로 곡물을 판 수 있는 자유시장에 자신의 생산물을 출하한다. 따라서 현재 식료품부족을 겪고 있는 모스크바에서 조차 자유시장에는 신선한 식료품이 풍부하게 쌓여 있다.

가장 자유화 체제하에서는 농민이 어디에 농산물을 출하하여도 비슷한 대가를 받을 것이므로. 따라서 자유시장의 경이적인 고가격도 사라지고 국영상점의 식료품 품목사태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완전한 가격자유화에 이르지 못하고 자유가격과 공정가격을 병존시키는 미온적인 개혁의 수행은 더욱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⁴¹⁾

소련 국내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고르바초프 정권이 출범한 이후 발생한 生產性伸長率을 상회하는 고율의 임금인상에 의해 증폭되어 왔다. 특히 1988년부터 1989년에 이르는 시기에 임금인상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은 증가하는 노동자의 노트라이크에 대해 임금인상이란 해결책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소련의 임금은 東歐諸國 중에서 꽤 높은 수준에 이르러 이것이 공급의 부족과 더불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킴으로써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을

40) 作 拓陳, 日本興業銀行調査部編, 檢證ノ連・東歐の經濟改革, 前掲書, pp. 39-40.

41) 佐岡, p. 41.

하고 있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진척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표 4 참조).

〈표 4〉 소련 노동생산성과 평균월수입 추이

	1985	1986	1987	1988	1989
사회적 노동생산성 신장률(%)	1.3	2.1	1.6	4.8	2.3
평균 월수(루블)	190.1	195.6	202.6	219.8	240.0
평균 월수 증가율(%)	2.8	2.9	3.7	8.3	9.2

3. 蘇聯邦의 解體

소련경제는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產業構造的 問題, 制度의 變化에 따른 問題, 긴급대책에 따르는 혼란, 페레스트로이카의 불철저한 수행이 표면화 시킨 모순등 다양한 문제의 해결에 쫓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고르바초프 이전에는 행정적·지시적 방법으로 해결하거나 강제적으로 은폐해 왔는데,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정치·경제·문화 기타 부문에서 수행된 페레스트로이카의 결과로서 일거에 분출되었다. 페레스트로이카 초기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1990년 중반에 이르러 페레스트로이카의 답보상태가 서서히 두드러져 보수파나 급진개혁파간에 개혁노선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보다 급진적인 경제 개혁안이 부상하였다. 그것은 러시아 공화국의 엘친의장을 중심으로 제안된 샤탈린 플랜⁴²⁾이었으니, 同案은 ① 500일 내에 市場經濟로 이행, ② 대담한價格自由化와 民營化, ③ 共和國에 대한 대부분의 經濟權 移讓을 골자로 하는 급진적 경제개혁안이었다.

하지만, 이와같은 경제개혁안이 제안만 되고, 실현에 옮겨지기 전에 소련 경제는 더욱 혼란이 증폭되었다. 또 소련연방과 각 공화국간의 권한의 분리문제, 각 공화국의 주권독립문제등 정치적 불안이 높아지고, 고르바초프 연방대통령과 엘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 간의 권력투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1991년 8월 19일 기주권의 유지를 위한 강경파의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갔으나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은 여전히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엘친은 蘇聯邦解體⁴³⁾ 가속화시키기 위해 슬라브 민족주의를 부추겼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및 러시아공화국의 수뇌들이 민스크에 회동하여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Souvereign States: CIS)을 결성하였으나, 고르바초프는 연방

41) 上同, p.42. 和田春樹, 「ペレストロイカ成果と危機」, 前掲書, pp.190-210.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1991년 12월 25일) 蘇聯邦은 완전히 해체되는 운명을 겪었다. 이와 더불어 결국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추진도挫折되고 말았다.

V. 蘇聯邦 解體후의 1年

1. 舊蘇聯邦 각 共和國의 혼란

蘇聯邦의 解體(1991년 12월 25일)로, 舊蘇聯의 共和國은 완전독립국으로 혹은 獨立國家聯合(CIS)의 일원으로 출범하였다. 蘇聯邦解體가 초래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첫째로, 해체후의 舊蘇聯의 각 지역은 경제적인 위기가 심화되었다. 자립할 수 있으리라 여겨졌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화국은 물론, 벨로루시 및 中央亞細亞諸共和國, 또한 3개월 전에 이미 독립을 한 밸트 3國도 경제적인 혼미상태로 빠져 있다. 리투아니아 독립의 영웅이라고 불리던 대통령 란지베루기스는 경제정책의 실패로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아 권좌에서 사라지기까지 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의 中央亞細亞 5개 국은, 1993년 1월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中央亞細亞國家聯合의 창설에 합의함으로써, 經濟面에서 별반 유효함을 보여주지 못하는 獨立國家聯合을 대신한 독자적 연방형성에 착수하고 있다.

6년 9개월에 이른 고르바초프 정권 동안 ‘위에서의 혁명’ 페레스트로이카는, 최소한 경제면에서는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다. 광대하고 민족적으로 복잡한 영역에서 70년 이상 계속된 統制經濟, 中央集權의 命令經濟를 아무런 경험과 모델도 없이 불과 수 년 동안에 市場經濟로 전환한다는 것은 무리한 실험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蘇聯邦해체도 舊蘇聯의 각 共和國의 경제상황을 호전시키지는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키고 말았다. 게다가 舊蘇聯軍의 처리, 核武器의 管理와 폐기, 공동의 경제공간창설, 러시아 이외의 舊蘇聯地域에 살고 있는 2,600여명의 러시아인의 차별처우 등 쉬지 않은 문제가 파생되고 있으며, 이들 문제의 해결전망도 뚜렷하지 않다.

연방해체후 민족분규의 발생건수와 그로 인한 사상자수는 고르바초프시대의 합계를 훨씬 웃도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금후 러시아연방 내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그루지야, 러시아와 몰트바, 러시아와 밸트 3國과의 분규, 그리고 그루지야와 타지키스탄의 내부대립,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분쟁의 불시는 언제 또다시 격화될지도 모르는 상황속에 있다.

2. 러시아共和國의 가이다르 개혁

蘇聯邦의 解體로 엘친은 고르바초프가 미처 하지 못한 과업을 러시아에서 추진할 기회를 포착하였다. 엘친은 급진개혁주의자인 가이다르를 수상대행으로 기용하여 1992년 1월부터 價格의 自由化를 단행, 급진적인 經濟改革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융자조건에 따른 재정긴축, 민영화노선을 추진하는 가이다르 수상대행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하지만 1992년 5~6월 이후, 엘친정권은 軍產複合體를 중심으로 하는 國營企業의 지지를 얻는 中道·保守派 세력과의 타협을 위해 내각인사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에너지 가격의 자유화 연기 등 개혁의 궤도수정을 하게 되었다. 끝내에는 1992년 10월까지 國營企業의 民營化를 완료하겠다던 공약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同年 12월 가이다르를 퇴진시키고 中道 성향의 체루노무이딘을 新總理로 임명해 야만 했다. 의회내에서의 保守派의 압력은 고르바초프의 경우에 더욱 심했었다. 그러나, 끈기있게 좌우균형을 추구해온 고르바초프와는 달리 엘친이 너무 쉽게 保守派와 타협한 사실을 두고 그의 지지기반에서조차 실망의 소리가 높았고 심지어 엘친은 政治哲學이 없다는 비판까지 나오고야 말았다.

한편 가이다르의 改革의 실패는 국가 단위의 대규모인 실험을 경솔하게 추진 할 것은 아니라는 교훈을 주었다. 체루노무이딘 신총리는 '즉흥적인 정책으로 부터 철저한 계산에 의거한 정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社會問題를 고려한 市場經濟'를 목표로 하여 우선 기본 食料品에 대한 統制價格復活을 결정하여 급진적 개혁의 실험에 제동을 걸었는데, 이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⁴³⁾

동안 러시아의 經濟는 연간 2000% 이상의 인플레이션과 20%의 생산저하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농·공업생산의 대폭적인 감소, 루블화의 가치하락, 실업자의 증가, 국민의 구매력의 저하 등 急進의 經濟改革의 不作用만 두드러졌으며, 西方側의 금융지원도 지지부진하여, 넌간 50억 ruble의 외화수요를 무기 수출에 의존하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그中最值得关注하는 문제는 빈곤층의 증가와 貧富의 隔差가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생활수준의 분극화 현상이다. 통계에 의하면 월수 3,000 루블에서 4,000 루블 정도인 빈곤생활을 하는 국민이 전체 인구의 40%를 절한다고 하며, 전문가에 따

43) 中譯孝之, “ソ連邦解體の 1年は失ったものだらけ”, 外交時報, 1993年 2月 2日, pp. 10-13.

라 60%로 추계하기도 한다. 그런데, 1992년 1년간 국민 소득은 7.4배 증가 하였으나 소비자 물가가 평균 17.5배 상승하여 생활수준은 오히려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니,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가이다르 노선의 영향으로, 주로 연금생활자, 學生, 研究員, 軍人의 생활은 크게 압박받게 되었다.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정신적으로 압박받는 研究員, 藝術家, 詩學者들은 기회만 있으면 외국으로 탈출을 기도하는데, 1993년 1월부터 출국이 거의 자유화되었으므로 두뇌유출 경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군인의 경우 들판에 비참한 곤경에 처했으며, 봉급만으로는 살수 없는 많은 장병이 날주, 軍資盜의 隨去來 등의 유혹을 받고 있다.⁴⁴⁾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범죄는 증가 일로에 있으며 이로고 엘친도 “범죄·부패가 국가를 침식하고 있다”고 경고한다.⁴⁵⁾

3. 러시아共和國의 保·革갈등과 엘친

고르바초프는 수없이 많은 발언에서 스탈린에 의해 왜곡된 社會主義를 시정하여 본래 있어야 할 社會主義, “인간적인 社會主義”的 모습을 추구한다고 천명했다. 즉 새로운 사회주의의 틀 속에서 현상타파를 피하려고 한 것이다. 이는 1993년 말 개최되는 제29차 당대회에서 채택될 예정이었던 新共產黨綱領草案에서 뚜렷이 드러난 바 있다. 반면에 엘친은 사회주의를 버렸다. 資本主義를 목표로 한다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市場經濟로의 履行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緊進的인 革新을 추구하는 엘친에게 保守勢力의 반발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1993년 2월 12일 러시아 憲法裁判所는 엘친 대통령이 지난해(1992년) 10월 극우보수파 정치조직인 ‘국민구국진선’을 불법화한 포고령을 위헌으로 판결했다.⁴⁶⁾ 또한 러시아 경국이 혼미한 텁바구니에서 공산당 지견이 가시화되고 있으니, 이는 개혁파해자, 保守勢力이 결집하여 정당등록, 늘수재산 회복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⁴⁷⁾ 한편 시베리아는 러시아정부와 資源의 관할권을 싸고 분쟁을 재개하여, 시베리아협의체는 단독국가 창설도 고려하고 있는 형편이다.⁴⁸⁾

이러한 러시아국내에서의 經濟惡化, 保·革간의 갈등으로 한때 엘친의 실각

44) 중앙일보, 1993년 2월 13일.

45) 中澤孝之, 前揭論文(外交時報, 1993년 2월 2일), p. 14.

46) 서울신문, 1993년 2월 13일.

47) 한국일보, 1993년 2월 21일.

48) 서울신문, 1993년 2월 18일.

수⁴⁹⁾ 까지 등장했는데, 미국정부는 市場經濟로의 전환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엘친을 지지한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천명하여 엘친정권의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前 러시아공화국 부총리 폴로다닌은 “엘친은 보수파 공세에 밀려 권한 실추된 명목상의 대통령”이라고 경고하였다.⁵⁰⁾ 실제로 보수파 수만명은 군복 봉기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였고 엘친은 창군기념일행사에도 불참하였으니, 엘친의 下野와 蘇聯의 復活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높아가고 있다.⁵¹⁾ 결국 이와 같은 압력 속에서 엘친은 改革政策에 제동을 가해야만 했으니 企業民營化法案을 철회하고, 國有財產 매각 권한 등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할 것임을 밝혔다.⁵²⁾

하지만 최근 보혁대결에서 엘친 대통령을 지지해온 ‘민주러시아’ 등 改革派는 사분오열에 있는 반면, 과거 공산당파·극우민족주의 그룹 등으로 분열됐던 보수파는 엘친 탄도를 위해 공조투쟁을 전개하고 있어, 엘친 대통령이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처럼 조기축출될 가능성마저 엿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現在 러시아憲法은 舊蘇聯시대의 것인데, 그 규정이 미비하고 불투명하여 ‘누가 러시아를 지배하는가’를 둘러싸고 엘친 러시아 大統領과 하부블라트 프 最高會議議長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엘친 대통령은 대통령측과 최고회:1측 대표 각 5인으로 구성되는 실무그룹에서 1993년 2월 말까지 권한분담에 관한 협정안을 작성하고, 다시 3월 상순 임시인민대의원대회에서 이를 승인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실무그룹에 제시된 大統領案은, ① 制憲會議에서의 新憲法체택, ② 新憲法체택까지의 현행 권리균형 유지, ③ 정부시책에 대한 의회·임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議會案은 대통령안과는 양립하지 않는 내용으로 어서 양 세력은 팽팽히 대치할 수밖에 없었다.

○ 러한 兩側의 대립상태는 ‘合意’의 성립을 불가능하게 했고 설사 합意가 성립도 더라도 의회측 주장이 수용되지 않은 합의라면 보수파가 지배하는 人民代議員大會에서 승인될 가능성은 희박하니, 엘친은 급진경제개혁정책을 담당한 가이대로 수상대행의 경질 경우에서와 같은 폐쇄를 피풀이 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엘친은 “합의가 달성되지 않으면, 국민투표에 호소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合意’와 ‘國民投票’의 양면작전으로 국면타개를 꾀했으나 민심이 반이 협저한 현 상황에서 엘친측 승리는 보장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한편 국민투표의 실시에 대해서는 保守, 民族, 共產主義 세력이 반대를 표명했다. 그리고 개혁의

49) 서울신문, 1993년 2월 24일.

50) 조선일보, 1993년 2월 23일.

51) 조선일보, 1993년 2월 24일.

52) 한국일보, 1993년 2월 25일.

지지 부진함과 경제위기로 인해 정치적 무관심층이 넓어지는 외에, 타타르스탄 등 러시아연방에서 분리를 바라는 공화국이 중앙주도의 국민투표에 참가거부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투표가 러시아 붕괴의 도화선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엘친 진영에서 조차 그 실시에 의문의 소리가 있는 실정이 있다.⁵³⁾

蘇聯邦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蘇聯邦大統領 고르바초프와 러시아聯邦大統領 엘친 간의 권력투쟁이 蘇聯邦의 소멸을 가져왔듯이, 러시아聯邦大統領 엘친과 하부 룰라토프 러시아최고회의(상설의회) 의장간의 권력투쟁이 엘친의 실각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러시아 정국은 經濟의 惡化와 정국의 혼미만을 더해가고 있다.

VII. 結 語

러시아 國家統計委員會가 공표한 1992년의 경제실적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지표가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시장경제로의履行過程은 혼미의 도를 더하고 있다. 前年 對比로 보면, 국민총생산(GNP)은 20%, 공업생산 18.8%, 농업생산 10%, 석유생산 14% 등 모든 수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1992년 1년 간의 물가상승률은 26배였고 루블貨의 환율은 1弗당 600여루블로 치솟았으며, 失業者는 일시적 실업자를 포함하여 200만명에 이르렀으니, 이 모든 수치는 예측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출생률이 11% 감소한 반면, 사망률이 5% 증가한 사실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생활까지 뒤흔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제악화의 와중에서 1993년 4월 11일로 예정되었던 新憲法의 基本原則에 대한 國民投票는 심각한 정치대립을 초래했다. 이는 러시아에 있어서 1993년 최대의 정치파제로 등장했다. 지난 12월의 러시아 人民議員大會에서 각각 “최고권력은 우리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심각하게 대립하던 엘친 大統領과 하부 룰라토프 最高會議 議長이 타협끝에 國民投票의 실시에는 합의했으나, 이번에는 그 구체적 투표 내용에서 다시 대립을 보였으며 게다가 투표실시 자체에 대한 반대의 소리가 여전히 보수파 사이에 크게 일고 있어서 과연 예정대로 국민투표가 실시될는지 조차 미지수였다.

엘친의 최대의 정치적 실패는, 1991년 8월 보수파의 쿠데타를 분쇄한 후 人民議員大會를 해산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엘친의 인기는 하락하고, 그러

53) 读賣新聞, 1993년 2월 23일.

54) 専喜之, “ロシア國民投票は保革・雙方に危険をかけ”, 外交時報, 1993년 3월 2일, 2. 8.

한국 상황에서 열린 1992년의 人民議員大會에서는 保守派와의 타협을 강요당해政局運營에 지장을 초래한 바 커던 것이다. 이제 옐친에게 국민투표는 위험한 드박과도 같은 부담을 안겨주게 되었다.

國民投票를 둘러싼 保革 각각의 생각은 양극단으로, 치달았으나, 革新派는 國民投票로 人民代議員大會를 폐지하여 ‘大統領制國家’를 확립하고, 또 新憲法은 人民代議員大會가 아닌, 6월에 선출되는 制憲會議에서 審議·制定할 속셈이었다. 현재의 人民代議員大會는 蘇聯邦 봉파진인 1990년 3월에 선출된 인물로 구성될 것으로서 保守派가 압도적 세력을 과시하고 있어서 大統領制의 確立, 改革의 촉진에 同大會는 ‘눈에 가시’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保守派는 國民投票에서 人民代議員大會를 중심으로 하는 國家體制의 유지를 도출하고자 國民投票 設問에 1994년 봄의 大統領選舉, 人民代議員選舉와 동시에 실시에 대한 시비를 물을 것을 주장했다. 이는 人民代議員大會의 연명을 끼하는 것으로 既得權을 사수하려는 保守派 代議員에 유리한 내용이다. 한편, 新憲法은 人民代議員大會가 制定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결국 憲法裁判所의 중재로 양측 주장을 애매하게 나마 결합하고 통과기준도 상이하게 적용한 가운데, 마침내 1993년 4월 25일 國民投票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를 보면 생각보다 높은 62%라는 투표율을 기록했고, 옐친에 대한 신임도도 높아 投票者의 單純過半數를 요하는 1,2문항에서는 무난히 필요한 찬성을 획득하여 대통령에 대한 信任과 現 政府의 改革政策에 대한 支持를 확인했다. 그러나 總有權者 過半數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3,4문항인 議會解散과 早期總選舉 실시, 憲法改定의 문제에서는 단순과반수를 넘는 투표자의 40% 이상의 지지率·얻었으나 통과기준의 차이로 말미암아 통과에는 실패했다.

國民投票의 결과가 나오자 양 진영은 각각 자신들의 승리를 주장하며, 옐친은 憲法改定에 착수했고, 러시아 人民代議員大會 측은 개혁추진기구인 국유재산우원회에 회계감사를 결정하고 옐친의 민영화작업을 ‘불만족스러운 조치’로 규탄하여 옐친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 결국 國民投票 이후에도 러시아정국의 항변은 여전히 혼미를 거듭하고 있을 때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끼리, 특히 정치지도자간의 권력투쟁이 오래 지속되면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 생활을 더욱 악화시키고, 그 나라의 국제적 위상, 국제사회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때이다.

舊蘇聯의 봉파, 러시아 聯邦의 保·革간의 갈등의 심화는 고르바초프가 내걸었던 세레스토로이카의 摧折에 따르는 결과인지 모른다.